

불기협 창립 20주년 행사 다채 ‘한국의 대중사’ 펴내... 12월 7일 기념행사

교계 14개 언론사 종사자의 모임인 불교기자협회가 창립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오후 6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봉행한다. 4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불기협 소속 기자 30인이 대중사 30인의 법문과 수행을 취재해 단행본으로 엮은 <한국의 대중사>(조계종출판사 펴)를 비롯해 근현대 고승의 진영을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어 봉행될 본 시상식은 조계종·태고종·진각종·관음종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스님,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에는 임연태 본지 부국장을 비롯해 이학중(미디어붓다), 김선두·이준엽(불교신문), 사기순(월간 불광) 등 교계언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자에 대한 공로상이 수여된다. 또 선원빈 기자상을 비롯해 우수기자 및 기획기사 등도 시상한다. 한편, <한국의 대중사들>은 11월 24일 경 발간 예정이다. 조계종 종정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종산 스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대중사 27인과 비구니 명사 광우·묘엄·명성 스님이 전하는 법문과 삶의 지침을 담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은정학술상 조승미 박사 선정 “여성성에서 보살행 요소 추출” 높이 평가

불교인재양성에 앞장 서고 있는 제8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은정학술상’ 수상자에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조승미 박사가 선정됐다. 은정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조승미 박사의 논문 ‘여성주의 불교수행론-한국불교 여성의 경험을 통한 탈가부장적 전망’에 대해 “페미니즘 관점에서 불교수행론의 미래와 방향을 모색해 여성성에서 보살행의 요소를 추출했다”고 평가했다. 불교학계의 신진 학자로는 성철선사상연구회 최원섭 선임연구원,

동국대 안필섭 강사가 선정됐다. 은정학술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연구비와 수상패가, 신진학자에게는 각 3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그밖에도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불교학회 등 단체 6곳, 불교단체 3명,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19명, 초·중생 36명, 독거노인 18명 등 115명에 대해 1억 5천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11월 29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봉행된다. 이상언 기자

“아이들에게 꿈 심는 보시하세요”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보내기’ 19일 선포... 12월 20일까지 모금



불우한 이웃의 어린이들에게 보낼 '선재의 선물'을 포장하는 아름다운동행 자원봉사자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시한다. 보시란 ‘베풀다’는 뜻으로, 대승불교의 6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간다. 6바라밀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순서이다. 수행의 마지막 목표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시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를 주기 위해 고민하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색다른 선물을 마련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며 11월 19일 선포식을 갖고 ‘선재의 선물보내기’ 사업을 시작했다. ‘선재의 선물보내기’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선물(책, 영양제, 방한용품, 격려카드 등)을 채운

박스를 빈곤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전달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진행방식은 아름다운동행에서 박스와 영양제·카드를 제공하고, 후원자들은 도서와 방한용품을 더해 선물박스를 준비한다. 직접 선물을 전달할 수 없는 참여자는 동행에 후원금을 입금해 대신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 조계종 사회봉사 행정 스님은 “사회와 공헌을 보내 신정을 받고 후원자를 늘려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계획적으로 나눔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는 ‘무주상보시’라 해서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

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내기에 부족했다”며 “아름다운동행이라는 기부재단이 중심축이 되어 불교계 보시문화를 공론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선재의 선물’ 사업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모금 운동을 벌인다. 그 사이 12월 11일에는 준비된 용품들을 포장하고, ‘선물전달 퍼포먼스’를 동시 날인 12월 22일 청계천에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사랑이 담긴 ‘선재의 선물’은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대회, 자비의 등 달기, 한끼 나누기, 자비 연꽃배지 달기 등의 자비나눔 운동을 전개해 9억 80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02)737-9595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수마트라 3만불 지원 JTS 활동보고회

9월 30일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에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JTS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최기진 팀장을 필두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웨스트 수마트라 주도(Padang) 등 최대 피해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11월 19일 ‘수마트라지진피해 활동 보고회’를 열고 “총 지원 금액 약 3만 달러를 8개 지역 1371가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JTS 박지나 본부장은 보고회에서 “지원이 미비한 현지 주민들에게 쌀 25,880kg, 텐트 300개, 주방기구 308세트, 전담하고 학교와 아이들에게 교복 519벌, 책가방 700개, 학용품세트 1,307세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호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JTS는 2010년 1월 부터는 피해 주택 건축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4대강 사업 중단” 광명둘레길 순례



광명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승묵 스님과 회원들, 그리고 광명 YMCA 회원들을 비롯한 80여명은 11월 16일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며 안양천변부터 광명 둘레길 순례를 나섰다(사진). 승묵 스님은 “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가 아니다”며 “이번 순례가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례는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에서 철산대교까지 약 4.6km를 걸으며 4대강사업으로 사라질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광명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광명 둘레를 순례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인류는 한 형제 메시지 전해야” 원불교신문 40돌 세미나서 종교역할 점검

다문화 공존시대를 맞이해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원불교신문 40주년 및 원음방송 창사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가 11월 18일 용산 하이원빌딩에서 개최됐다. “다문화 공존시대,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주요 4대 교단이 참여해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대안을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종교의 역할을 점검했다.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들과 종교·문화적 이유로 갈등을 빚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종교교계가 앞장서서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은 기초강연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종교(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는 보편적 형제

애사랑, 자비, 인를 가르쳐왔고 계급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 전파돼 왔다”며 “종교계는 이러한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육희 교수(원광대)는 “결혼이민 여성의 가정생활문제는 남편,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편견과 차별 등으로 집약된다”며 “튼튼한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다문화 가정이 설 수 있다”고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교계 사례발표 시간에 진원 스님(김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다문화 시대, 이주민 대상 불교활동 현황”을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안살림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 자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

고양시, 東大 약학대 유치 나서 17일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 발족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약학대 신설 및 정원 승인 발표를 앞두고, 동국대의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고양시 지역사회가 나섰다. 고양시(시장 강현석)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지역 약사회 등 지역단체는 11월 17일 고양시청 상황실에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유치지원단 공동위원장으로 강현석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영선 의원(일산 서구), 김태원 의원(덕양읍), 손범규 의원(덕양갑), 고양시·경기도의회 의장, 고양시 약사회장 등이 추대됐다. 이어 동국대 약대유치 지원을 결의하고 이를 문서화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에는 대형병원(5개)이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고양시·동국대가 함께 추진중인 고양메디칼러스터 구축은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철호 고양시의회 의장은 약대 유치지원단 발족취지문에서 “고양시가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300만명에 이르는 인구밀집지역이지만 약학대학이 전무하다”며 동국대에 반드시 약대를 우선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연구지원시설 지원 △보건의료 인력양성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국책과제 유치 시 대응자금 제공 △제약기업 연구소 세제혜택 △글로벌 제약사 연구소 유치 추진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내놓는 등 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7월 천문우 前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혜능선사의 수행처에서
도를 이룬 만행스님 이야기

마음의 달 1·2

무문관 7년 수행

6조 혜능, 랍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현대불교 11월 4일자 12·13면에 “혜능선사의 보임수행처에 동화선사 우묵”
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마음의 달(전2권), 만행스님 지음.
1권(연화생수련) 166쪽, 율갈라(연화생수련 CD포함).
2권(마음닦는법) 334쪽, 각 1만원.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왜 도를 깨치려 하고 부처 되는 공부를 하려 할까?
존재하는 것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침이 바로 시작이다
도는 세속에 있고 부처는 인간세상에 있으니
세속에서 수행해야 능력과 인품이 원만해진다.
능력이 큰 사람이 자비심이 없다면 그는 마귀일 뿐이다.
능력도 있고 덕도 있어야 중생을 구제 할 수 있다.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향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 동화선사의 자재당(自在堂).
3층으로 구성된 선원에는 1000여명이 동시에 참선할 수 있다.
28수를 형성한 28처마가 보인다.

고전의 미래 **대유학당**
(02) 2249-5630~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서신빌딩 402호

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www.daeyou.net www.daeyou.or.kr

대유불교시리즈 ① 음!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